

출판 현장에서의 T_EX의 활용

— 이공계열 대학교재 출판을 중심으로

이주호*

2009년 2월 14일

차례

1 책이란	2
1.1 책의 정의	2
1.2 책의 구성	2
2 출판 과정에서 T _E X이 관여하는 부분	5
2.1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5
2.2 T _E X이 관여하는 부분	5
2.3 T _E X 원고에 대한 출판사의 반응	8
3 과연 T _E 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9
3.1 T _E X의 단점... 그리고 장점	9
3.2 남는 장사	10
4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14
4.1 판형 및 판면 결정	14
4.2 글꼴	20
4.3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22
5 수식	24
5.1 T _E X 수식의 특징	24
5.2 수식 조판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25
5.3 수식 조판을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	27
6 부록: 최근 출판 현황	34
6.1 출판 통계	34
6.2 T _E X으로 편집된 책은 몇 종?	34
6.3 한글 글꼴 선호도 조사	36
7 참고 문헌	38

*latex.juho@gmail.com

1 책이란

1.1 책의 정의

1964년 11월 유네스코는 파리 총회에서 <도서 및 정기간행물 통계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권고>¹를 채택하였다.

- (1) 도서(a book)란 국내에서 출판되어 또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적어도 49페이지(표지를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을 말한다.
- (2) 소책자(a pamphlet)란 어느 일국에서 출판되어 또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적어도 5페이지 이상 48페이지 이하(표지를 제외)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을 말한다.

이 권고에 의거 유네스코는 표지를 제하고 본문이 49쪽 이상인 출판물을 ‘도서’로 간주하여 각국의 출판통계에 반영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홍보물, 전람회 프로그램, 단체 규약집, 달력 등 광고목적이나 일회성 발간물은 도서에서 제외된다.

작고한 서지학자 남애 안춘근(南涯 安春根) 선생은 『한국서지학원론』에서 책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문자나 그밖의 기호로 체계있게 기록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권고 가운데 ‘인쇄된’이라는 조건과 49쪽 이상이라는 ‘분량 제한’ 조건을 따르자면 수많은 고전 가운데 책의 범주에 들 수 없는 것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49쪽 이하로 편집된 『천자문』이나 국보로 지정된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 등을 예로 들었다.

대한교과서에서 폐낸 고등학교 교과서 『출판 디자인』에서도 유네스코 권고 가운데 ‘인쇄된’이라는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 경우 인쇄술 발명 이전에 나온 서적인 필사본을 제외시켜야하고 CD롬이나 전자책의 경우도 그 형식상 인쇄의 범주에 넣기 어렵기 때문에 서적의 요건으로 적합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출판사전』에 의하면 책(冊)은 사람의 사상·감정을 글·그림 등으로 적거나 인쇄한 종이를 여러 장 겹쳐맨 물건이라 하였다.

강희일은 『한국 출판의 이해』에서 책이란 “인간의 사상·감정·지식·사항 등을 일정한 목적·내용·체제에 맞추어 문자·글·그림·사진 등으로 표현하여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여러 페이지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의 총칭”이라 하였다. 또,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100쪽 이상인 간행물을 도서로 인정하고, 영국은 책의 자격을 분량과 관계없이 최저가격에 의해 정한다고 하였다.

1.2 책의 구성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표지, 재킷, 띠지 등 바깥 부분과 본문이 들어가는 안쪽 부분이다. 여기서는 안쪽 부분의 구성을 주로 알아본다. 안쪽 부분은 크게 앞부분(front matter, preliminary matter), 본문(text), 뒷부분(back matter, end matter)으로 나눈다. 우리나라 책과 서양 책의 구성에서 이 세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비교한다. 여기서는 『Chicago Manual of Style』, 『도서편집총람』과 『한국 출판의 이해』에서 구분한 내용을 언급한다.

¹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tatistics relating to Book production and Periodicals*, Thirteenth Session, Paris, 1964.

표 1 책의 구성

	Chicago Manual of Style	도서편집총람	한국 출판의 이해
앞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ok half title • Series title, frontispiece, or blank • Title page • Copyright page • Dedication • Epigraph • (table of) contents • (list of) illustrations • (list of) tables • Foreword • Preface • Acknowledgements (if not part of preface) • Introduction (if not part of text) • Abbreviations (if not in back matter) • Chronology (if not in back matter) • Second half tit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그림 (frontispiece) • 표제지 (title page) • 헌사 (dedication) • 서문 (preface) • 범례 (explanatory notes) • 약어표 (list of abbreviation) • 참고문헌 (bibliography) 뒷부분에 위치할 수도 있음 • 차례 (cont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면 (full title page) • 앞그림 (frontispiece) • 드리는 말 (dedication) • 머리말 (preface) • 차례 (contents) • 일러두기 (explanatory) • 약어표 (list of abbreviation)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rst text page (introduction or chapter 1) <i>or</i> • Second half title or first part title • Blank • First text p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제지 (part title page, divisional title page) (이 책은 사실상 본문 판면의 구성 요소에 대해 책 전반에 걸쳐 설명한 책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표제 (middle headings, part title page) • 난외표제 (running title, headlines) • 쪽번호 (page number) • 캡션 (caption) • 주 (notes) • 인용 (quotation)
뒷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knowledgements (if not in front matter) • Appendix (or first, if more than one) • Second and subsequent appendixes • Chronology (if not in front matter) • Abbreviations (if not in front matter) • Notes • Glossary • Bibliography or References • (List of) Contributors • Illustration Credits (if not in captions or elsewhere) • Index(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록 (appendix) • 후주 (endnotes) • 용어해설, 연표 등 • 찾아보기 (색인, index) • 후기 (afterword, postscript) • 판권 (copyr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록 (appendices) • 후주 (endnote) • 참고문헌 (bibliography) • 찾아보기 (index) • 후기 (afterword) • 간기면 (copyright page, imprint-page) •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표 1에서 보듯이 각 지역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책을 구성하는 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가장 큰 차이는 판권의 위치인데 최근 우리나라의 출판물도 판권을 앞부분에 두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앞부분’은 보통 쪽번호에 소문자 로마숫자(i, ii, iii, ...)를, ‘본문’과 ‘뒷부분’은 아라비아 숫자(1, 2, 3, ...)를 사용한다. 본문이 시작하는 쪽은 다시 ‘1’로 맞추어 매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book`이나 `memoir` 클래스에서 `\frontmatter`, `\mainmatter`로 지정하면 쪽번호에 대한 설정을 앞서 설명한 대로 해준다.

```
\documentclass[twoside,b5paper,openright,11pt]{memoir}

\usepackage{amsmath}
\usepackage[bookmarks=true]{hyperref}
\usepackage{mathptmx}

\usepackage[hangulpagestyle, finemath, microtype]{kotex}
...

\makeindex

\allowdisplaybreaks

\begin{document}

\frontmatter

\tableofcontents
...
\mainmatter

\chapter{이것은 첫 번째 장}
\section{이것은 첫 번째 장의 첫 절}
\subsection{이것은 첫 번째 장의 첫 소절}
    본문이 위치한다.
...
\chapter{이것은 두 번째 장}
...
\backmatter

\begin{thebibliography}
...
\end{thebibliography}

\printindex

\end{document}
```

2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2.1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출판 과정을 짧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기획 —> 2. 편집 및 제작 —> 3. 배포

자세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 또는 수집, 취재

편집 레이아웃 구성 및 조판, 교정/교열

제작 RIP, 터잡기 및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접지, 제책

배포 판매 또는 전자출판

출판 실무를 다룬 책을 살펴보면 크게 ①편집 또는 ②제작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쓴 것이 많다. 편집자 출신의 저자는 편집을 출판의 핵심이라 주장하며 레이아웃과 조판 위주로 설명하고, 제작자 출신의 저자는 인쇄와 제책을 출판의 꽃이라 주장하며 제작 위주로 저술한다. 상투적인 멘트이기는 하지만 어느 한쪽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편집과 제작은 팽팽하게 맞서 있다. 일례로 편집이 엉성하더라도 제작 단계에서 책의 내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용지의 선정, 제목을 돋보이게 하는 금박, 따내기 등 후가공으로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가 하면, 제작 과정에서 별다른 효과도 주지 않았지만 본문 레이아웃이 원체 훌륭하게 편집된 탓에 돋보이는 책도 있다.

이후 발표자는 여러 분야의 출판 가운데 수식이 일정 부분 들어간 이공계 계열의 대학교재(수학, 물리, 통계 등)를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2.2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가운데 T_EX 이 관여하는 부분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원고 작성
- 편집(조판 및 레이아웃 구성)
- 전자출판(pdf, html, dvi, ...)

원고 작성 다양한 방법으로 원고를 작성할 수 있다.

- 원고지에 직접 쓰기

보통 한줄에 스무 글자 정도 쓸 수 있게 된 원고지에 글을 쓴다.² 이는 저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지만, 꼭 전근대적인 유물처럼 바라볼 문제만은 아니다. 정교한 글쓰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원고지에 직접 정서하는 저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글에 대한 아이디어 착상이나 문장 다듬기 효과가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보다 크다는 것이다. 가장 큰 장점은 수식 입력도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이다.

² 요즘은 이런 저자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2008년 말에 원고지에 글을 쓰는 저자를 만난 적이 있다.

No. 08 19

2007년 10월

2007년 10월 10일 주가 폭락이 연중 최고에 이르렀던 이후 주가 하락은 계속화되었는데, <표 1>에와 같이 10월 10일 이후 3월에 이르기까지 1학기인 주가 폭락이 있었고, 4월 들어 5월부터 10월 말 까지 2학기인 폭락이 있었고,

※ 주가 폭락의 크기는 2학기 후반의 폭락과 1학기 폭락의 폭락을 학기별로 비교해, 이러한 주가 3)수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 MSCI ASIA 50)의 변동률은 주 1주) 유사하다. 이는 주로 핵심 기업들이 MSCI ASIA 50)의 폭락을 주도한 주가 폭락으로서 사상상 2008년 10월 29일에 있었던 폭락(※)에 따른 드립을 모인다. 군

<표 1> 2007년의 주가 3)수 추이

	2007. 10/10 - 2008. 3/18	2008. 5/19 - 2008. 10/29	2008. 10/10 - 2008. 10/29
코스피 3)수	(-) 22	(-) 49	(-) 53
코스닥 3)수	(-) 27	(-) 60	(-) 68
MSCI ASIA (50)	(-) 24	(-) 53	(-) 59

△ 博英社 原稿用紙

그림 1 원고지에 직접 쓰기

- 육성으로 녹음해오기

원고지에 글을 쓸 힘이 없거나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힘이 없는 저자들은 육성으로 원고를 읽어 녹음해 보내기도 한다. 어떤 사람의 원고이길래 육성 원고라도 받아서 출판할 만큼 실익을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 편집부가 겪을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³

-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하게 직접 쳐넣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아래아한글 파일, MS-WORD 등으로 수식이 들어간 원고를 입력한다. 두 프로그램은 전문 조판 프로그램이 아닌 “워드 프로세서”이다. 워드 프로세서의 장점은 개인이 구매하여 사용할 만큼 저렴한 편이며, 전문 조판 프로그램에 비해 익히기가 쉽다는 것이다.

아래아한글의 수식 입력 방식은 TeX 수식 입력 방식을 차용하였다. 수식 명령어는 TeX 명령어와 제법 닮아있다. TeX과 달리 명령어 앞에 백슬래시 ()를 넣지 않는다. 아래아한글 2004 이상의 버전부터는 수식을 직접 또는 GUI 입력,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이공계열 대학교재 원고의 대부분이 아래아한글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S-WORD의 수식은 MATHTYPE의 축약형 버전이므로 MATHTYPE 사용과 흡사하다. GUI 방식이지만 인티그럴 (\int), 시그마 (\sum), 분수 ($\frac{b}{a}$), 근호 (\sqrt{a}), 그리스 문자, 벡터, 위/아래 첨자 등은 미리 예약된 단축키로 입력할 수 있다. 입력하는 사람에 따라 속도에 큰 차이가 나지만 MS-WORD를 이용하여 수식이 들어간 원고를 입력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바로 tex 파일로 원고를 입력해오는 경우가 있다. 편집부가 몹시 긴장하는 순간이다. 저자가 컴파일 된 파일을 pdf 또는 ps로 보내주지 않으면 원고의 모양조차 짐작하기 어려울 따름이다. TeX을 다루는 저자는 자신이 원하는 수식을 정확히 입력하여 출판사로 보낸다.

편집 책의 내용을 보기 좋게 읽히도록 하기 위해 판형을 정하고 판면 디자인 또는 레이아웃 구성을 시작한다. 편집에 쓰이는 조판 프로그램은 QUARKXPRESS, INDESIGN, 서울시스템, 서라(SURA), PAGESSTAR 등이 있으며 최근 10년 사이 워드 프로세서인 아래아한글과 MS-WORD 도 조판 소프트웨어로 간택(?) 되어 두루 쓰이고 있다. 대부분의 출판사는 품위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전문 조판 프로그램을 선택하며, 이들의 조판 단기는 워드 프로세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TeX은 전문 조판 프로그램이다. 1990년 (TeX으로 한글 문서를 처음 조판한 해) 이후 TeX으로 조판된 많은 한글 출판물을 찾아볼 수 있다.

전자출판 전자출판은 문자나 화상정보를 디지털 미디어—온라인, 전자책단말기, CD 등—를 이용하여 출판하는 것이다. TeX이 “조판, 그 이상의 가능성”을 보이는 대목 중의 하나가 바로 전자출판이다. 요즘 TeX에서 pdf를 얻는 것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 최종 출력물로 자리잡고 있다. 온라인 문서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pdf는 DVIPDFMx, pdfTeX, XeTeX 등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전자책갈피(bookmark) 생성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수월하게 작성해준다. LTeX2HTML이나 TeX4HT 등 다른 유ти리티를 이용하면 html로도 간단하게 변환할 수 있다. 또, 언급하기엔 좀 낡은 감이 있지만 dvi 파일도 별도의 뷰어를 통해 온라인에서 제공되기도 하였다.

* * *

³ 발표자는 딱 한번 육성 원고를 받아 책을 낸 적이 있는데 두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

이상 TeX 이 출판에 관여할 수 있는 과정 가운데 ‘TeX 편집’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2.3 TeX 원고에 대한 출판사의 반응

원고가 `tex` 으로 들어왔을 때 TeX 을 다룰 줄 모르는 출판사나 조판소의 반응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그나마 한글 부분이라도 살펴보겠다고 저자가 힘들여 입력해온 `tex` 원고에서 `\documentclass`, `\begin{...}` ~ `\end{...}` 구문, `$$` ~ `$$` 같은 명령과 환경을 모두 없애고 자신들이 익숙한 수식을 지원하는 조판 프로그램(아래아한글 포함)으로 입력한다. 나중에 원문 수식과 새로 입력한 수식을 대조하느라 저자, 편집자와 입력자 셋이서 눈이 뻔해지도록 고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예정된 출판일을 맞추지 못하기 쉽다. (오호통재)

저자가 입력해온 그대로 출판 TeX 조판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고 간주하고 저자가 입력해온 그대로 출판한다. 최소한 ‘차례’가 달려있고 재수가 좋으면 ‘찾아보기(index)’까지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조판 규칙은 지켜보겠다고 저자와 “면주와 쪽번호 위치를 판면 하단으로 내려주면 아니되겠느냐, 장(chapter) 시작하는 페이지를 좀 세련되게 해줄 수 없겠느냐, 글자 크기를 10.5 포인트로 해줄 수는 없느냐” 등 저자와 타협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원고 작성에 이미 에너르기의 $\frac{3}{4}$ 을 소진한 저자, 계속되는 출판사의 요구에 잠시 자신이 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조판소의 역할을 대신해준다.

저자도 본문과 관련된 그래프나 사진 등을 넣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친절하게도 그림 하나당 5~7cm 가량 적당한 수직 공간을 벌려온 상태이다. 출판사에서 그림을 마련하여 적당히 오려 풀로 붙여준다.

마무리 단계에서 출판사는 표지와 표제지, 판권 등을 TeX 이 아닌 다른 조판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붙여넣는다. 찾아보기가 없을 때는, 본문의 핵심단어를 일일이 본문 쪽수과 대조해가면서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여 역시 TeX 이 아닌 다른 조판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준다.

3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으로 작성된 원고를 굳이 다른 조판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입력할 만큼 출판사는 재정 상태가 여유로울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TeX을 다룰 수 있는 조판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올며 겨자먹기로 맡기는 것이다. 원고 단계부터 새로 조판하므로 예정 출판일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조판 비용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수학교재는 레이아웃 구성과 조판에 제작비가 많이 소모된다. 수식 입력에 많은 시간과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텍스트 위주로 구성된 인문학 교재의 조판이 저렴할까, 아니면 키보드에 없는 수식기호를 별도의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에 비용이 적게 들까? 일반적으로 이공계열 대학교재는 인문학 교재에 비해 2~3 배 이상 조판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부담 때문에 출판사는 TeX 출판을 꺼린다. 설령 TeX으로 출판하고자 하더라도 새로 조판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저자가 입력해온 대로 출판하고 만다.

3.1 TeX의 단점... 그리고 장점

우선 단점부터 언급한다.

1.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한다.
2. GUI 방식이 아니라서 자신이 조판하고 있는 판면의 모양새를 바로 볼 수 없다.
3. 자신이 원하는 폰트를 사용하기까지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이 중 마지막에 언급한 폰트 문제는 사실상 거의 해결되었다. DVIPDFMx의 출현으로 한글 트루타입폰트(true type font)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XeTeX을 사용하면 tfm 없이도 트루타입폰트, 오픈타입폰트(open type font), 타입 1 폰트(type 1 font)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단점으로 텍에 입문하기 위한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스를 컴파일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얻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전문 조판 프로그램을 익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드는 수고와 노력이, 텍에 익숙해지기까지의 그것에 비해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특정 조판 프로그램에 입문하는 진입 장벽의 높낮이는 **일반적인 편집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 된다**고 생각한다.

* * *

이제 TeX이 지닌 장점을 언급한다. 우선 TeX을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소프트웨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하도 우려먹어서 식상한 느낌도 있다.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사용자들이 날마다 새로운 솔루션을 리포트하고 있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사실상 수식 조판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사용자가 원한다면 본문에 사용된 글꼴과 어울리는 수식 폰트로 바꿀 수 있는 폭이 매우 넓다.
4. 상호참조(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장절 번호, 수식 번호, 그림과 표 번호, 참고문헌 번호 등을 되찾아 인용할 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5. 차례(table of contents)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표 차례나 그림 차례도 만들어준다.
6. 찾아보기(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찾아보기는 차례를 만드는 것에 비하면 조금 품이 더 듦다. 본문에 \index 표시를 해주어야하기 때문이다. 책에 찾아보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장점 가운데 뒤에 언급한 세 가지만 하더라도 편집자나 저자의 수명을 늘리는 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17세기 네이피어(John Napier)가 발명한 로그(logarithm)가 큰 수 계산에 지친 천문학자의 수명을 늘렸다고 하듯이.

* * *

TeX은 조판에 관한 고급스러운 테크닉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2008년 9월 QUARKXPRESS 8K가 발매되면서 내놓은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매달린 문자세트(Hanging Punctuation; Character Protrusion)” 기능이다. (그림 3) 문장부호나 구두점 등을 좌우 내밀어 판면을 더욱 가지런해 보이도록 하는 이 기능은 Hàn Thé Thành 이 만든 PDFTeX과 microtype 패키지를 이용하면 바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림 4) 참고로 1989년 우리나라 동화책에서 구현한 이 기능도 살펴보자. (그림 2)

리거쳐(ligature, 합자) 기능도 (폰트만 제대로 지원한다면) 모두 구현할 수 있다. 그림 5 와 그림 6 은 Adobe Illustrator CS2와 XeTeX의 리거처를 비교해본 것이다.

3.2 남는 장사

텍으로 들어온 원고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명령어 몇 가지만 알아두자. 정말 몇 개 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굳이 텍이 아닌 다른 조판 프로그램 사용자였더라도 편집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충분한 바탕이론만 갖추고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단지 조판 프로그램으로 QUARKXPRESS나 아래아한글 대신 TeX을 택한 것뿐이다. 게다가 위에 언급한 장점은 고급 조판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던 것들인데 패키지 몇 개를 얹는 것만으로 간단히 구현된다. 수식이 미려한 것은 더할나위 없이 기쁜 일이고, 더욱이 선택의 폭도 넓지 않은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따로 조판 비용을 들이느니 TeX을 조금만 배워 원고를 살려 출판해보자. 전혀 손해볼 것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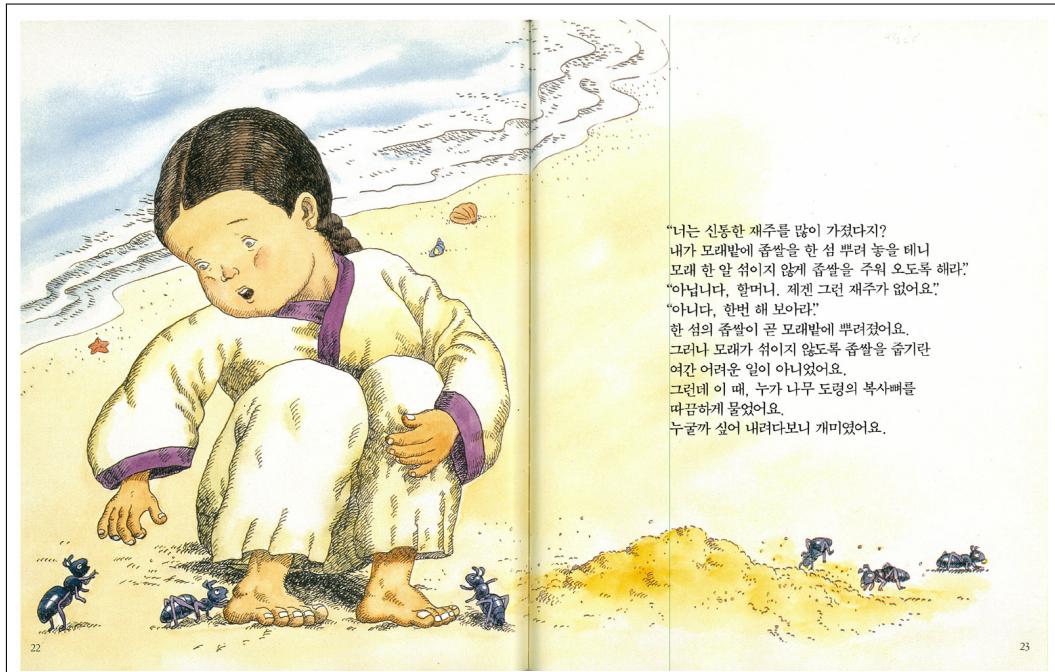


그림 2 서울그래픽스에서 편집한 《나무도령》(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매달린 문자 세트

매달린 문자 기능은 단락 경계선 상의 세밀한 제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좌우정렬된 텍스트에서 더 깔끔한 “가장자리”를 생성하기 위해, 단락 경계선 밖으로 인용 부호를 약간씩 밀어내어 “매달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용 부호는 텍스트 상자 밖에 놓이게 되더라도 지정한 규칙대로 정렬됩니다.

“This sentence has a hanging quotation mark at the end.”

맑은 물, 수려한 경관,
와 스릴을 즐길 수 있
는 수한 대지, 최고 봉인
원들의 지구촌이다.”

分けるとか、
プロジェクト
ができます。
次のように

텍스트 경계선 밖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 “매달린 문자”에 대한 규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QuarkXpress 8K 안내 책자에 새로운 기능으로 소개된 매달린 문자세트 기능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분홍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소녀는 무안한지 안방에 숨어서, 무안하고, 나타나지 아니했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훌깃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Ut purus elit, vestibulum ut, placerat ac, adipiscing vitae, felis. Curabitur dictum gravida mauris. Nam arcu libero, nonummy eget, consectetuer id, vulputate a, magna. Donec vehicula augue eu neque. Pellentesque habitant morbi tristique senectus et netus et malesuada fames ac turpis egestas. Mauris ut leo. Cras viverra metus rhoncus sem. Nulla et lectus vestibulum urna fringilla ultrices. Phasellus eu tellus sit amet tortor gravida placerat. Integer sapien est, iaculis in, pretium quis, viverra ac, nunc. Praesent eget sem vel leo ultrices bibendum. Aenean faucibus. Morbi dolor nulla, malesuada eu, pulvinar at, mollis ac, nulla. Curabitur auctor semper nulla. Donec varius orci eget risus. Duis nibh mi, congue eu, accumsan eleifend, sagittis quis, diam. Duis eget orci sit amet orci dignissim rutrum.

Nam dui ligula, fringilla a, euismod sodales, sollicitudin vel, wisi. Morbi auctor lorem non justo. Nam lacus libero, pretium at, lobortis vitae, ultricies et, tellus. Donec aliquet, tortor sed accumsan bibendum, erat ligula aliquet magna, vitae ornare odio metus a mi. Morbi ac orci et nisl hendrerit mollis. Suspendisse ut massa. Cras nec ante. Pellentesque a nulla. Cum sociis natoque penatibus et magnis dis parturient montes, nascetur ridiculus mus. Aliquam tincidunt urna. Nulla ullamcorper vestibulum turpis. Pellentesque cursus luctus mauris.

그림 4 진작부터 구현되던 PDFTeX과 microtype의 글자 내밀기(character protrusion). 판면의 처음과 끝에 매달린 문장부호를 보라.

Arno Pro Regular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fjord fjord
Myriad Pro Regular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fjord fjord

그림 5 Adobe Illustrator CS2 의 리거처 기능

Arno Pro Regular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fjord fjord
Myriad Pro Regular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fjord fjord

그림 6 XeTeX 의 리거처 기능

4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4.1 판형 및 판면 결정

판형은 실제 책의 크기이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는 판형은 국반판, (신)국판, 크라운판, 4*6 배판, 국배판 등이 있다. 이중 대학교재라고 한다면 신국판, 4*6 배판, 국배판 정도일 것이다. 표 2에 그 크기를 적어놓았다.⁴

표 2 대표적인 판형과 그 크기

종류	판형 (가로×세로)	판면 (가로×세로)	비고
신국판	152×224mm	105×170mm	
크라운판	174×251mm	120×195mm	출판사별로 판형의 가로와 세로는 각 ±3mm 정도 허용치가 생기며,
4*6 배판	190×260mm	135×210mm	판면은 1단으로 편집할 때 일반적
국배판 (A4)	210×297mm	150×240mm	인 예이다.

판형이 결정되면 판면을 정한다. 판면은 판형에 본문을 앉히는 영역, 즉 글자나 그림, 표 등이 위치하는 영역이다. 판면을 구성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한다.

윌리엄 모리스 안-위-바깥-아래 여백의 비율을 $1 : 1.2 : 1.2^2 : 1.2^3$ 의 비율로 1.2 배씩 여백을 넓혀가는 방식이다.

스탠리 언원 안-위-바깥-아래 여백의 비율을 $1.5 : 2 : 3 : 4$ 의 비율로 넓혀가는 방식이다.

황금비 위-아래 여백의 합과 안-바깥 여백의 합의 비율이 $1.618 : 1$ 로 되게 하고, 다시 위-아래의 비율이 $1 : 1.618$, 안-바깥의 비율이 $1 : 1.618$ 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안-위-바깥-아래의 여백 비율이 $0.618 : 1 : 1 : 1.618 = 3 : 5 : 5 : 8$ 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종운은 《도서편집총람》에서 이들 여백을 우리 책에 적용할 경우 위 여백이 너무 좁아보인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판면 구성 방법을 추천하였다.

- 위와 아래의 여백을 같게 하되 면주를 제외한 본문만으로 써 같게 한다. (우리의 전통 시각으로 안정감을 더 주기 위해 면주가 면 상단에 있을 때에는 면주를 포함시킨 본문으로 써 여백을 같게 한다.)
- 안 여백은 바깥 여백의 $1/2$ 로 하되, 접혀지는 시각적 요소를 감안하여 바깥쪽 여백의 10%를 더 안여백에 준다.
- 바깥과 아래 여백은 ‘거의 같은’ 나비로 한다. (행간을 좁히고 51% 이상의 큰 판면을 취하는 경우라면 판면이 무거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깥과 위(본문만의)을 거의 같은 나비로 한다.)

⁴ 여담이지만 판형은 제작단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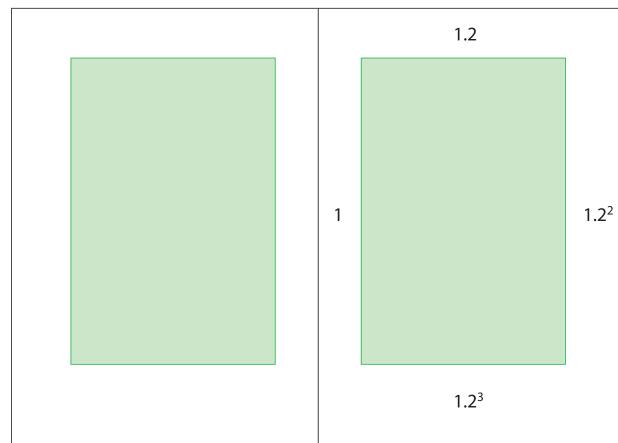


그림 7 월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의 판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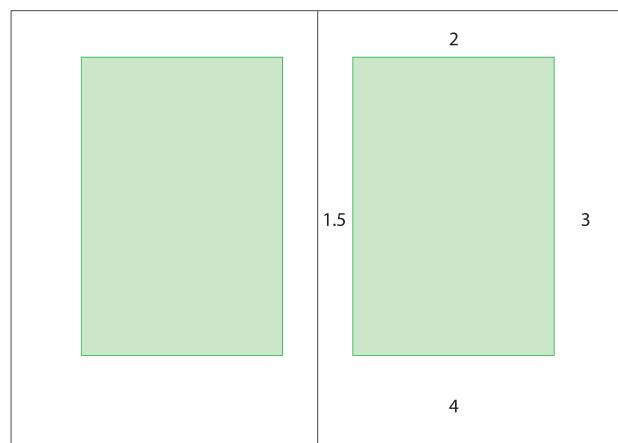


그림 8 스탠리 언윈(Sir Stanley Unwin)의 판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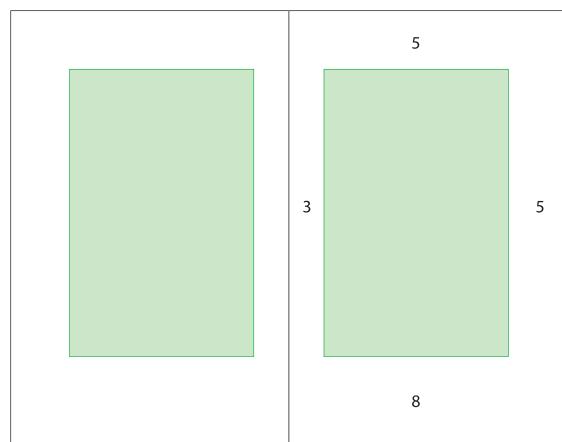


그림 9 황금비(Golden Section) 판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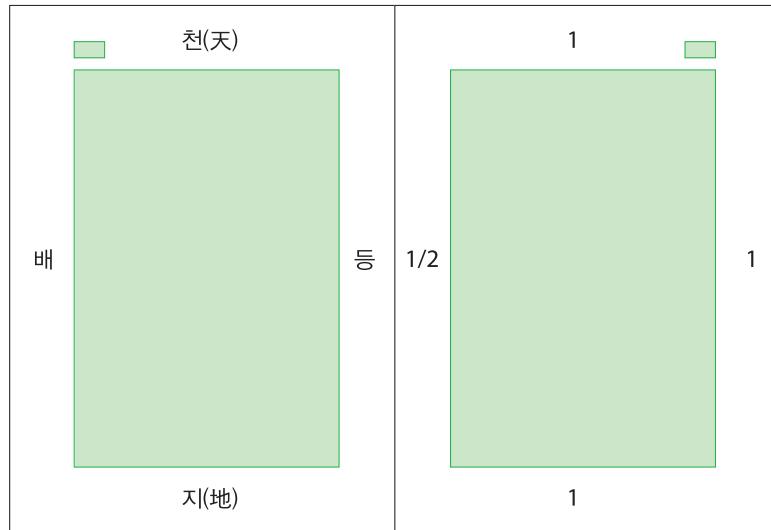


그림 10 이종운의 판면 구성

표 3 판형과 판면 구성 시 고려해야 할 TeX 패러미터

판형과 판면 구성 요소	관련 TeX 패러미터	비고
①판형	\paperwidth, \paperheight	
②판면	\textwidth, \textheight	
③1 단 또는 2 단, 변 2 단, 3 단	\onecolumn, \twocolumn, \columnsep, \marginparwidth, \marginparsep	
④상하좌우 여백 (마진)	\hoffset, \voffset, \evensidemargin, \oddsidemargin, \marginparwidth, \marginparsep, \topmargin	
⑤판면에 들어갈 행 수	geometry 패키지 중 lines 인자	
⑥면주와 쪽번호의 높이	\headsep, \headheight, \footskip	

TeX으로 판면을 구성할 때 결정해야 할 요인이 많다. 그 요인과 제어해야 할 TeX 패러미터는 대략 표 3 과 같다.

보통 ④만 결정되면 판면이 판형의 어디쯤 앉히게 될 지 결정될 뿐더러, 판면의 가로와 세로 길이 (②)도 자동적으로 계산된다. 판면에 들어갈 행의 수(⑤)가 결정되면 판면 세로가 결정된다. 상단 면주 (running header) 또는 하단 면주 (running footer)는 판면에 속할까 여백에 속할까? 편집자에 따라 면주와 쪽번호가 들어가는 영역을 판면 세로의 길이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포함시키지 않기도 한다. TeX 은 구조상 \textheight 의 길이에 면주와 쪽번호가 식자될 길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layouts 패키지로 그려본 현재 이 문서의 구조는 그림 11 과 같다.

* * *

이제 판면을 결정하는 패러미터는 모두 잊자. book, report, article 등 표준 클래스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상단과 왼쪽 1 인치의 여백⁵을 없애기 위해 \setlength{\hoffset}{-1in} 와 같이 설정했던 기억도 잊자. 여기 오신 분들은 geometry 패키지 하나만 기억하자.

⁵ 이를 ‘driver margin’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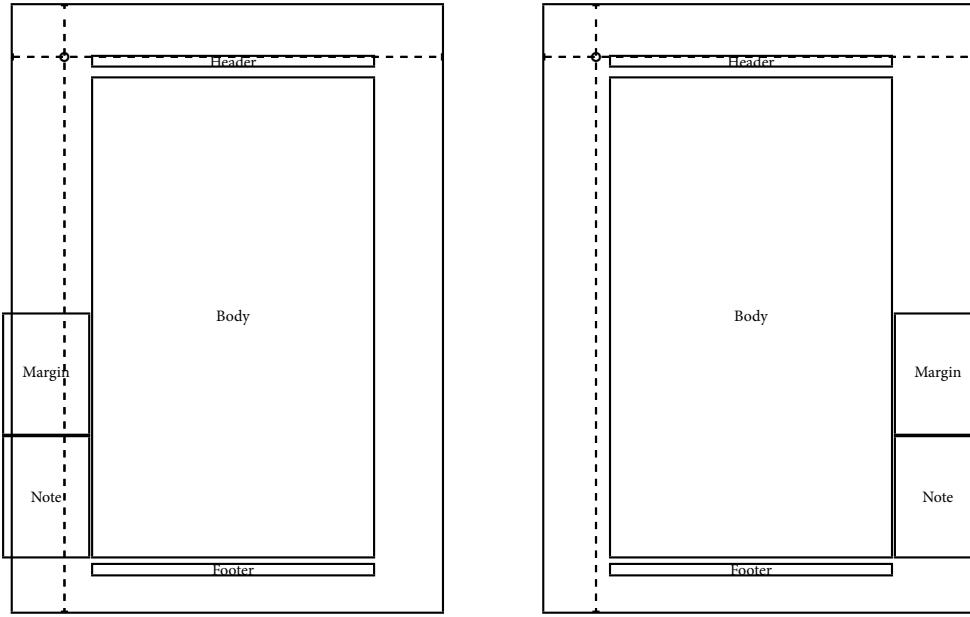


그림 11 이 발표 자료의 구조

`\usepackage{geometry}` `\usepackage{geometry}` 패키지의 설정은 무척 간단하다. preamble에 `\geometry` 설정을 해주어야하는데 기본적으로 판형의 가로와 세로, 판면의 가로와 세로를 정해주면 그만이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림 12, 13, 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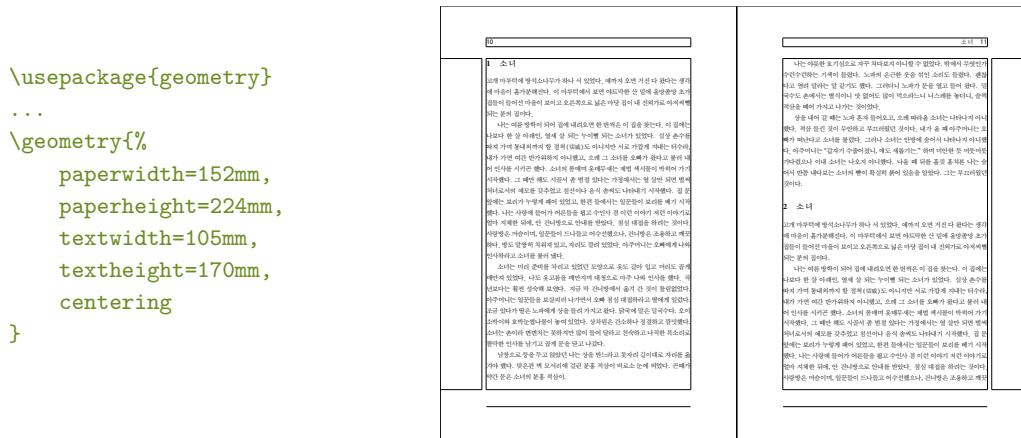


그림 12 신국판 설정의 예

마진을 살려 소위 ‘변 2단’ 판형의 편집을 하는 것은 한 줄만 더 넣으면 된다. 예를 들어 4*6 배판의 변 2단 판형을 구성한다고 치자.⁶ 마진 여백을 3.5cm, 본문을 10cm, 마진과 본문 사이의 거리를 0.5cm 띄운다고 가정하자. 그림 16을 보라.

여기서 아까 `\geometry` 설정할 때 보이던 `centering` 설정 대신 `marginparwidth`와 `marginparsep` 값만 넣었다. `centering`은 판면(`textwidth`와 `textheight`)을 판형의 상하좌우 가운데로 놓으라

⁶ 변 2단은 주단과 보조단으로 구성되며, 주단은 통상적인 본문이 위치하는 단, 보조단은 주단의 오른쪽 또는 왼쪽 여백에 그림이나 주(note) 등을 붙이는 단이다. 참고로 주단과 보조단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2단 편집이다.

```
\usepackage{geometry}
...
\geometry{%
  paperwidth=174mm,
  paperheight=251mm,
  textwidth=120mm,
  textheight=195mm,
  centering}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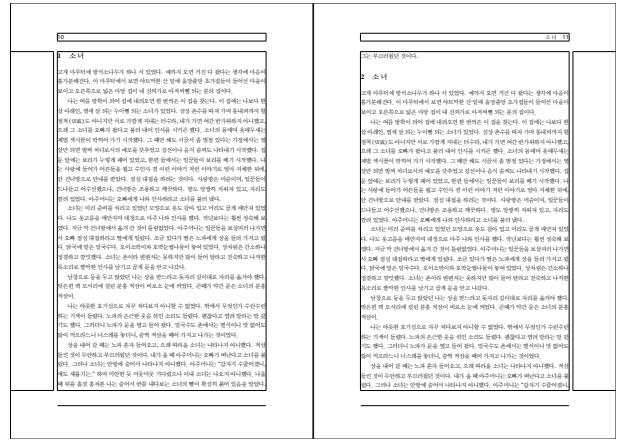


그림 13 크라운판 설정의 예

```
\usepackage{geometry}
...
\geometry{%
  paperwidth=190mm,
  paperheight=260mm,
  textwidth=135mm,
  textheight=210mm,
  centering}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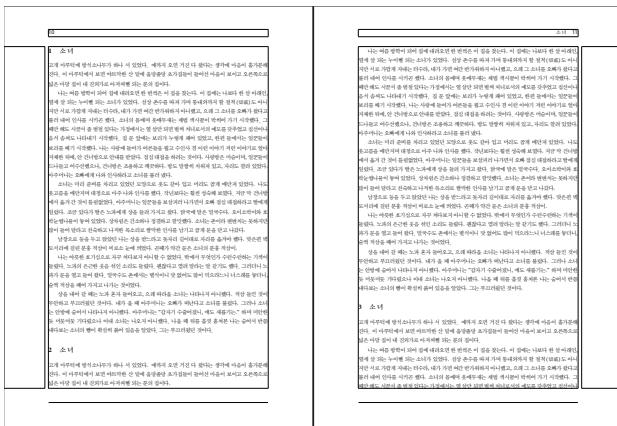


그림 14 4*6배판 설정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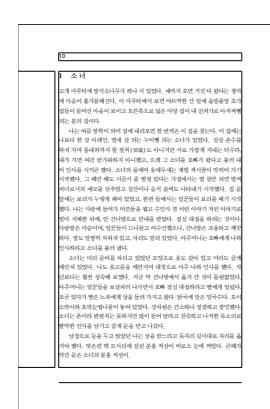


그림 15 원쪽부터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크기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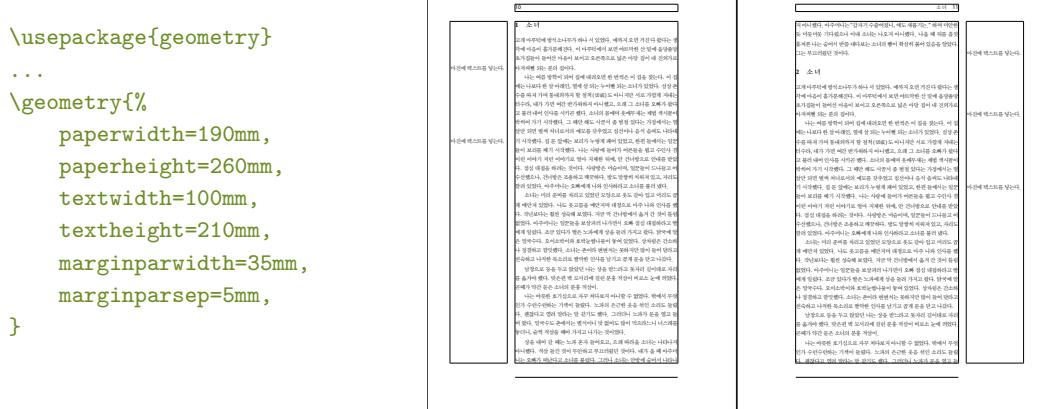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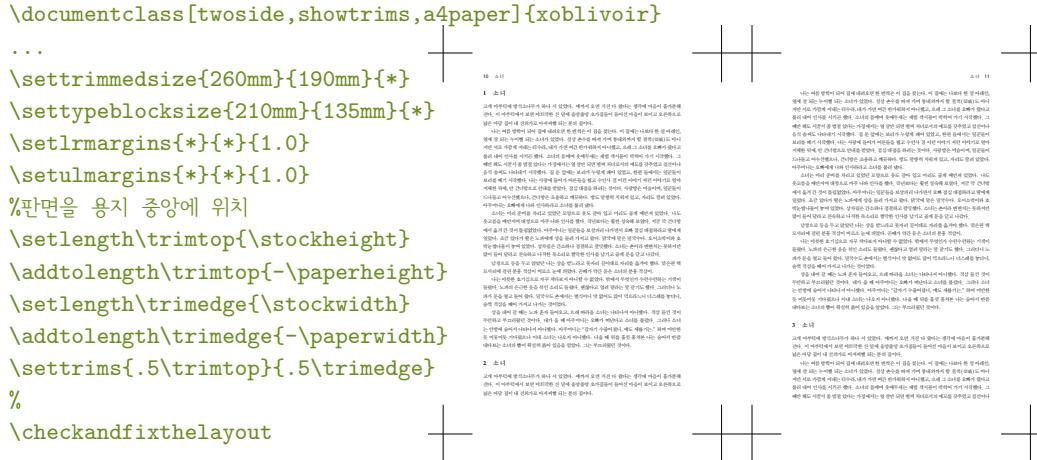
그림 16 4*6배판 변2단 설정의 예

는 명령이다. 세부적으로 `vcentering`, `hcentering`을 합친 효과와 같으며, 상하의 비례값(ratio)을 줄 수도, 좌우의 비례값을 주어 설정할 수도 있다. 변2단 판면에서 주단을 판형의 상하좌우로 가운데 놓으면 보조단이 너무 판면의 바깥쪽으로 쏠리게 된다.

더 자세한 것은 `geometry` 패키지의 설명서를 참조하자.

```
> kctexdoc geometry
```

`memoir` 피터 윌슨(Peter Wilson)의 `memoir` 클래스도 `geometry` 패키지와 비슷하게 판면을 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 클래스 자체에 다음 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geometry`를 얹을 필요가 없다. 4*6배판 판형을 설정하는 예를 보인다. (그림 17 참조)

그림 17 `memoir` 클래스로 그려본 4*6배판 설정의 예. A4 용지에 4*6 배판의 재단선을 십자가로 표시하였다.

그리드 적용하기 판면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몇 개의 구역(Grid)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단행본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그리드, 즉 판면 자체가 하나의 그리드인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이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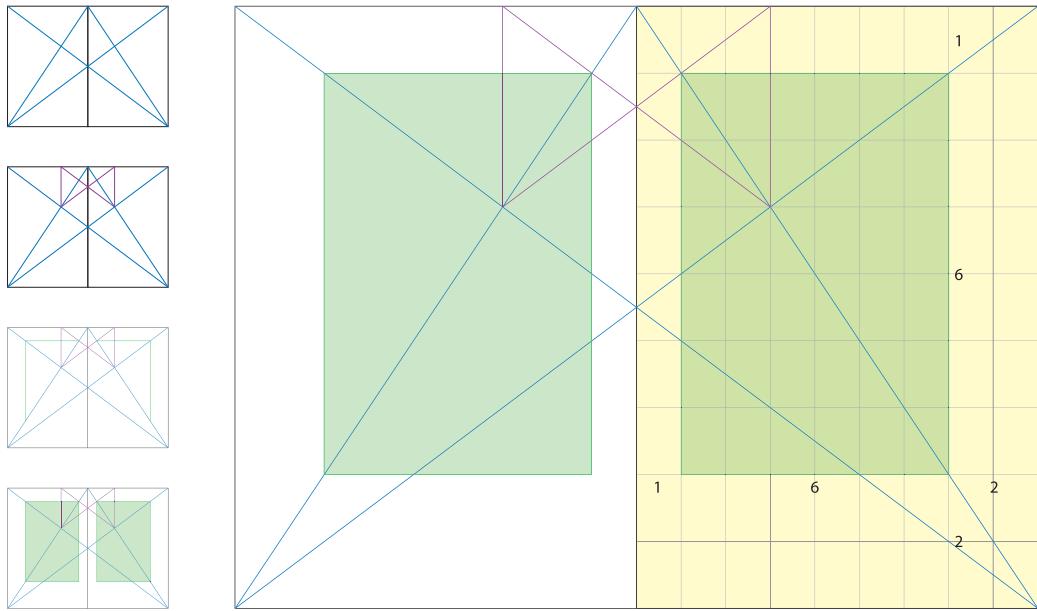


그림 18 빌라르 드 온쿠르의 도형

복잡한 잡지나 신문 등은 복잡한 그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얀 치홀트(Jan Tschichold),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모듈러(Modular) 시스템 등 수많은 예가 있을 수 있으나 고전적인 방식만 하나 소개한다.

13 세기 빌라르 드 온쿠르(Villard de Honnecourt)는 어떤 판형이 주어지더라도 안여백(윗여백), 판면 가로(판면 세로), 바깥여백(아래여백)의 비례가 일정하도록 (1:6:2) 내부를 81 개의 단위 사각형으로 나누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므로 그림을 통해 설명한다. (그림 18 참조)

4.2 글꼴

글꼴 선택 본문 글꼴을 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해당 책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글꼴을 택하는 것은 특히 주어진 방정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잘 알려진 글꼴을 쓰는 게 좋다.

글꼴 선호도에 대한 조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 글꼴이 다양하지 않았던 활판 인쇄 시대 또는 사진식자 시대에 명조체가 고딕체보다 본문용 활자 또는 글꼴로 적합하다는 연구 정도가 나와 있다. 비교적 최근 연구 가운데 김창수와 정용욱이 각각 2004년과 2007년에 조사한 우리나라 그래픽 및 출판 디자이너의 한글 글꼴 선호도는 표 4, 표 5에 정리해두었다. 두 연구자의 결과는 설문조사 응답자 수, 응답자의 연령대, 남녀구성비, 조사 시점 등에 차이가 있지만, 특히 김창수는 선호 글꼴을 응답자당 세 가지, 정용욱은 응답자당 두 가지 글꼴을 택하게 한 것에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선호하는 글꼴의 트렌드 변화를 추측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두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글꼴 선호도에 대한 기존 조사를 찾기가 어려워 나란히 비교해보고자 한다.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본문 글꼴은 명조계열이 고딕계열보다 더 선호되고 있으며, 이는 예전의 가독성 연구에서도 나타난 사실이다. (《Asian Journal of TeX》 vol.2 no.2 참조) 다만, 특이한 것은 김창수의 연구에서 본문용 글꼴로 윤고딕, 굴림, #중고딕, HY중고딕 등 고딕 계열 글꼴이 거론된 점이다.

글꼴 선택에서 부딪히는 다른 문제는 한글과 영문이 어울리는 글꼴을 좀처럼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표 4 한글 본문 글꼴 선호도 조사

김창수	비율(%)	정용육	비율(%)
윤명조*	32.2	윤명조 100	24.1
SM 신명조	12.4	윤고딕 100	21.3
윤고딕*	10.7	SM 신명조	8.6
산돌명조	8.3	SM 신신명조	6.3
# 신명조	5.0	산돌명조	4.6
HY 신명조	3.3	윤고딕 300, 산돌고딕	3.4
SM 신신명조, 바탕, 굴림	2.1	윤명조 200	2.9
		돋움	2.3
신명조, 휴먼명조, HY 중고딕, # 중고딕	1.7	HY 중고딕	1.7

* 윤명조, 윤고딕은 각각 윤명조 100, 윤고딕 100 시리즈

표 5 한글 제목 글꼴 선호도 조사

김창수	비율(%)	정용육	비율(%)
윤고딕*	16.5	윤고딕 100	20.0
윤명조*	9.9	윤명조 100	13.3
HY 울릉도	5.4	SM 신신명조	6.0
산돌고딕	4.1	산돌고딕	4.7
산돌명조	2.9	윤고딕 300	4.0
HY 헤드라인, # 견출고딕, 윤체, 산돌제 비, 산돌신문제비, SM 신명조	2.1	HY 중고딕, SM 중고딕, 신문명조	3.3
		윤고딕, HY 중고딕	2.7

* 윤명조, 윤고딕은 각각 윤명조 100, 윤고딕 100 시리즈

한글 폰트에 같이 들어있는 영문 폰트는 품위가 덜하거나 발음 구별 부호⁷가 달린 확장 라틴 문자 중에는 없는 것도 있다. 리거처는 물론 커닝 정보도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글과 영문 폰트를 분리하여 쓰는 추세이다. 세리프(serif) 있는 영문 폰트는 명조(또는 바탕) 계열과 어울리고 산세리프(sans serif) 영문 폰트는 고딕(또는 돋움) 계열과 어울린다. 이렇게 분리하여 쓰다보니 한글과 어울리는 영문 폰트를 찾는 데에 많은 경험이 필요하게 되고 특히 한글, 영문, 수식이 고루 어울리는 판면을 구성하려면 적잖은 노력이 들게 된다.

이 부분은 가독성과 미적 감각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대목인지라 따히 제시할 수 있는 규칙이 없다. 외국만 하더라도 이것저것 재지 않고 사용만하면 그다지 나쁘지 않은 영문 폰트가 많이 있는데, 국내 출판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T_EX에서도 트루타입폰트 사용 가능 앞서 소개한 본문 글꼴 선호도 목록에 있는 글꼴 가운데 한글 T_EX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2002년 11월 조진환 교수의 DVIPDFM_x가 나오기 전에는.... 한글 트루타입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 DVIPDFM_x는 T_EX 출판 분야에서 하나의 획을 그은 물건이다. 그 전에도 물론 한글 트루타입폰트를 쓰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DVIPDFM_x로 인해

⁷diacritical mark. ‘°^_” 와 같은 악센트, 움라우트, 세디유 따위.

H_ET_EX의 기본 폰트이자 유일한 한글 글꼴인 UHC 타입 1 글꼴에 만족하지 못했던 여러 편집자의 불만이 해소되었다. 현재 KC2008에 내장된 TTF2KOTEXFONT의 전신인 김도현 교수의 TTF2HLATEXFONT도 트루타입폰트를 사용하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복잡한 tfm을 TDS(TeX Directory Structure)에 맞게 설치하고 map 파일을 설치해주는 기능의 덕분이었다.

글꼴 크기 성인에게 적합한 글꼴 크기는 10-12 포인트가 무난한 것으로 각종 연구사례에서 보고하고 있다. 단, 같은 10 포인트의 글꼴이더라도 전각 가상몸체 (imaginary body)에 꽉 차게 디자인 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선택한 글꼴에 따라 크기를 조금씩 달리 편성할 수 있는 눈썰미와 융통성쯤은 가지고 있어야한다.

4.3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글줄 사이 우리나라 책의 행간은 영문서적보다 넓은 편이다. 영문 폰트의 경우, baseline skip(줄간격, 행송)을 본문 크기의 120% 정도로 정하는 것이 표준이다. 예를 들어 조판 지정에서 “10/12pt, 21pc”는 본문 폰트를 10포인트, 글줄 사이는 12포인트, 본문의 길이는 21파이카로 하라는 것이다.⁸

우리 책은 보통 본문 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포인트로 많이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줄간격은 16포인트보다 더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줄간격을 정하는 몇 가지 명령만 보인다.

```
\fontsize{10pt}{16pt}\selectfont  

\setlength\baselineskip{14pt} % 이 명령을 직접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renewcommand{\baselinestretch}{1.5}  

\linespread{1.0} % \selectfont % 본문 중간에 이 명령을 내릴 때 \selectfont를 같이 써준다.  

\linespread{1.333} % ko.TeX의 기본값  

\linespread{1.5}
```

자간과 어간 영문 폰트의 자간을 줄이는 것은 안 된다! 일부러 커닝 (kerning)이나 트래킹 (tracking)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좋은 폰트일수록 커닝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커닝은 영문 소문자 26자와 영문 대문자 26자가 각각 조합될 때 그 간격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커닝 정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A와 V가 만날 때 눈에 띄게 좋다는 것이다.

표 6 영문 폰트의 커닝

커닝이 적용되었을 때	AVIATION	Toyota	Valley	World
커닝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AVIATION	Toyota	Valley	World

그러나 한글 폰트 대부분이 정사각형의 전각 크기에 자면을 조금 작게 구성하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조판하였을 경우 글자와 글자 사이가 조금 넓어보인다. 자간 조절이 된 폰트를 사용하지 않는 한 한글 문

⁸ 행간은 말 그대로 인접한 두 행 사이의 거리이다. 예를 들어 10/12pt 지정에서 행간은 글줄 사이 12포인트에서 본문 글자 크기 10포인트를 뺀 2포인트이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 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끔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 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끔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그림 19 단어 간격이 넓어 생긴 흰강 또는 도마뱀 현상

장은 여절 단위로 읽히기 때문에 자간을 좁히는 것이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간의 문제도 특별히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한글 폰트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자간을 적용해야 한다. 편집자의 많은 경험이 필요한 대목이다. \LaTeX 은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놓았다. 다음은 자간을 좁히거나 넓히지 않고 opt로 설정한 예이다.

```
\usepackage{dhucs-interword}
\interhchar{0pt}
```

단어 간격(어간)도 마찬가지이다. 영문 조판이든 한글 조판이든 어간이 넓으면 이른바 줄과 줄 사이에 공교롭게 빙칸이 수직으로 죽 늘어선 ‘흰강’(white river) 또는 ‘도마뱀’(lizard) 현상이 생긴다고 한다. \LaTeX 은 사용자가 보기 편한 어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역시 장치를 마련해놓았다. 다음에 등장하는 숫자는 모두 기본 폰트에 곱하는 인수이다. 예를 들어 옵션에 들어있는 수치 .6은 \xspaceskip 간격, 즉 온점(.)이나 쉼표(,) 등 뒤의 간격을 말한다. 단어 간격을 정하는 .475는 예를 들어 본문 크기가 10 포인트라면 이에 .475를 곱하여 .75 포인트로 설정된다.

```
\usepackage{dhucs-interword}
\interhword[.6]{.475}{.1}{.1}
```

5 수식

5.1 TeX 수식의 특징

TeX 수식은 어느 조판 프로그램보다도 광범위한 수식 기호를 표현할 수 있다. 가까운 예로 워드 프로세서임에도 불구하고 수학교재 조판에 많이 사용되는 아래아한글 수식 조판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수식기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식 폰트의 종류가 다양하다.

또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가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수나 이항연산, 관계연산기호, 위/아래 첨자 등에 대해 미세 조정(fine tuning)이 다 되어있다. 《The TeXBook》에 보면 표 7과 같은 분류와 미세 조정값이 소개되어 있다.

표 7 수식 미세 조정 분류와 그 값

분류	의미	예	분류	의미	예
0	Ordinary	/	4	Opening	(
1	Large operator	\sum	5	Closing)
2	Binary operation	+	6	Punctuation	,
3	Relation	=	7	Variable family	x

약자는 각각 Ord (ordinary), Op (large operator), Bin (binary operation), Rel (relation), Open (opening), Close (closing), Punct (punctuation), Inner (a delimited subformula)이다.

Right atom								
	Ord	Op	Bin	Rel	Open	Close	Punct	Inner
<i>Left atom</i>	Ord	0	1	(2)	(3)	0	0	(1)
	Op	1	1	*	(3)	0	0	(1)
	Bin	(2)	(2)	*	*	(2)	*	(2)
	Rel	(3)	(3)	*	0	(3)	0	(3)
	Open	0	0	*	0	0	0	0
	Close	0	1	(2)	(3)	0	0	(1)
	Punct	(1)	(1)	*	(1)	(1)	(1)	(1)
	Inner	(1)	1	(2)	(3)	(1)	0	(1)

여기서 0, 1, 2, 3은 각각 no space, thin space (=3mu), medium space (=4mu), thick space (=5mu)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라

$\max\{x, y\} + \min\{x, y\}$

을 조판하면 이 수식은 각각 Ord, Bin, Ord, Rel, Op, Open, Ord, Punct, Ord, Close, Bin, Op, Open, Ord, Punct, Ord, Close 형태가 되고 이를 조판하면

$$x \boxplus y = \max\{x, y\} + \min\{x, y\}$$

즉,

$$x + y = \max\{x, y\} + \min\{x, y\}$$

이 된다. 이렇듯 TeX의 수식은 간단하면서도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

koTeX에는 `finemath`라는 결출한 수식관련 옵션이 있다. 거칠게 말하면 본문 중에 등장하는 한글과 수식 사이의 간격을 미세하게 제어하는 옵션이다. 수식뿐만 아니라 문장부호의 위치와도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koTeX 사용자 설명서》 또는 《Asian Journal of TeX》 vol.1 no.2에 실린 김 도현 교수의 “유니코드 koTeX에서 `finemath` 기능의 구현” 등을 참고하라.

5.2 수식 조판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allowdisplaybreaks` `\allowdisplaybreaks` 명령을 preamble에 두면 여러 줄에 걸친 수식이 판면 하단에 위치할 때 자동으로 수식을 분리하여 양쪽에 걸쳐준다. 그럼 `20`을 통해 차이점을 살펴보자. 이 명령을 쓰지 않았을 때는 수식이 분리되지 않고 다음쪽에 등장하게 되어 앞쪽 판면 하단이 텅 비게 된다.

수직 정렬 위치 구분자 & `등 여러 줄에 걸친 수식을 조판할 때 수직 정렬 위치 구분자인 ‘&’를 조심해야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수식을 조판한다고 하자.`

```
\begin{align}
\bar{g}(g)(\alpha(X,Y),V) =& \bar{g}(g)(\text{nor}\overline{\nabla}_XY,V) \\
=& \frac{1}{r}\bar{g}(\overline{\nabla}_XY,P)
\end{align}
```

$$\bar{g}(\alpha(X,Y), V) = \bar{g}(\text{nor} \overline{\nabla}_X Y, V) \quad (1)$$

$$= \frac{1}{r} \bar{g}(\overline{\nabla}_X Y, P) \quad (2)$$

수직 정렬 위치 구분자를 `=&` 와 같이 지정하면 '=' 기호 뒤의 공간이 의도대로 띄어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 와 같이 하자. 다른 관계기호나 연산기호도 마찬가지이다.

```
\begin{align}
\bar{g}(g)(\alpha(X,Y),V) ={}& \bar{g}(g)(\text{nor}\overline{\nabla}_XY,V) \\
=& {} \frac{1}{r}\bar{g}(\overline{\nabla}_XY,P)
\end{align}
```

$$\bar{g}(\alpha(X,Y), V) = \bar{g}(\text{nor} \overline{\nabla}_X Y, V) \quad (3)$$

$$= \frac{1}{r} \bar{g}(\overline{\nabla}_X Y, P) \quad (4)$$

별행 수식의 수직 정렬 별행 수식(display math)이 길어 분리할 때, 수직 정렬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 관계 기호 또는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을 한다. 행장의 끝부분에 남겨두고 자르지 않는다. 단 행중 수식(in-line math) 일 경우는 예외이다.
-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한 수식은, 연산 기호가 윗줄의 관계 기호 ‘오른쪽’에 있는 첫 문자에 맞춘다.

26 출판 현장에서의 TeX의 활용

<p>2 오일러의 공식</p> <p>복소수를 가르쳤다. 그의 기초 대수학 교재인 『대수학 원론』(Elements of Algebra)에 보면 교재의 거의 맨 앞부분부터 복소수를 도입하고 있고 교재 전체를 통틀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p> <p>3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증명</p> <p>테일러 급수에 따라 실수 범위에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p> $e^x = 1 + x + \frac{x^2}{2!} + \frac{x^3}{3!} + \cdots = \sum_{n=0}^{\infty} \frac{x^n}{n!}$ $\cos x = 1 - \frac{x^2}{2!} + \frac{x^4}{4!} - \frac{x^6}{6!} + \cdots = \sum_{n=0}^{\infty} \frac{(-1)^n}{(2n)!} x^{2n}$ $\sin x = x - \frac{x^3}{3!} + \frac{x^5}{5!} - \frac{x^7}{7!} + \cdots = \sum_{n=0}^{\infty} \frac{(-1)^n}{(2n+1)!} x^{2n+1}$ <p>이때 x가 복소수일 때에 앞의 무한급수를 각각의 함수로 정의한다. 그러면</p>	<p>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증명 3</p> <p>다음과 같이 성립한다.</p>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frac{(iz)^7}{7!} + \frac{(iz)^8}{8!} + \cdots$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cdots$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cdots \right)$ $+ i \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cdots \right)$ $= \cos z + i \sin z$
--	---

<p>2 오일러의 공식</p> <p>복소수를 가르쳤다. 그의 기초 대수학 교재인 『대수학 원론』(Elements of Algebra)에 보면 교재의 거의 맨 앞부분부터 복소수를 도입하고 있고 교재 전체를 통틀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p> <p>3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증명</p> <p>테일러 급수에 따라 실수 범위에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p> $e^x = 1 + x + \frac{x^2}{2!} + \frac{x^3}{3!} + \cdots = \sum_{n=0}^{\infty} \frac{x^n}{n!}$ $\cos x = 1 - \frac{x^2}{2!} + \frac{x^4}{4!} - \frac{x^6}{6!} + \cdots = \sum_{n=0}^{\infty} \frac{(-1)^n}{(2n)!} x^{2n}$ $\sin x = x - \frac{x^3}{3!} + \frac{x^5}{5!} - \frac{x^7}{7!} + \cdots = \sum_{n=0}^{\infty} \frac{(-1)^n}{(2n+1)!} x^{2n+1}$ <p>이때 x가 복소수일 때에 앞의 무한급수를 각각의 함수로 정의한다. 그러면</p>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frac{(iz)^7}{7!} + \frac{(iz)^8}{8!} + \cdots$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cdots$	<p>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증명 3</p>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cdots \right)$ $+ i \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cdots \right)$ $= \cos z + i \sin z$
---	--

그림 20 \allowdisplaybreaks 명령을 쓰지 않았을 때(위)와 사용했을 때

역시 예를 들어 설명한다.

```
\begin{aligned}
e^{iz} &= \{ \} & 1 + iz + \frac{(iz)^2}{2!} + \frac{(iz)^3}{3!} + \dots \text{(생략)} \\
&\quad + \frac{(iz)^7}{7!} + \frac{(iz)^8}{8!} + \dots \\
&= \{ \}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dots \\
&= \{ \} & \left( 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dots \right) \\
&\quad + i \left( 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dots \right) \\
&= \{ \} & \cos z + i \sin z
\end{aligned}
```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begin{aligned}
& + \frac{(iz)^7}{7!} + \frac{(iz)^8}{8!} + \dots \\
&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dots \\
&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dots \right) \\
& \quad + i \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dots \right) \\
& = \cos z + i \sin z
\end{aligned}$$

5.3 수식 조판을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⁹

MathType QUARKXPRESS¹⁰나 MS-WORD 등에 사용된다. 과거에 MS-WORD로 수식이 들어간 교재를 편집하다보면 컴퓨터가 자주 다운되거나 파일 용량이 비대해지고, 수식 입력을 위해 기호 아이콘을 하나하나 마우스로 찍어야했던 기억이 있다. 최근에는 불편했던 수식 입력 방식을 개선하여 단축키를 잘 설정하였으며 TeX 코드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다. 특히 MS-Word 2007 버전은 Cambria Math 폰트를 지원한다.

$$\begin{aligned}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frac{(iz)^7}{7!} + \dots \\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dots \\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dots \right) + i \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dots \right) \\
&= \cos z + i \sin z
\end{aligned}$$

그림 21 MS-WORD에서 MATHTYPE을 이용한 수식

아래이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식 조판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이다. 워드 프로세서임에도 불구하고 조판 프로그램에 필적할 만한 다양한 기능, 예를 들어 마스터 페이지 설정이나 글꼴 스타일 설정, 간단하고 강력한 표 편집 기능 등으로 인해 실제 출판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MLayout 맥킨토시에서 작동되는 국내산 조판 프로그램으로 수식 조판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QUARKX-PRESS의 한계를 넘지 못하여 고전하고 있은 것으로 보이며, 2008년 11월부터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¹⁰

태광수식 QUARKX-PRESS의 Xtension의 하나인 태광수식 등이 국내 출판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사실상 태광수식이 우리나라 수식 조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태광수식 매뉴얼 가운데 한 컷을 보인다.

⁹ 이 단락의 예제는 발표자의 다른 글 『TeX과 책』을 참조해도 좋다. <http://kts.ktug.kr/node/42>

¹⁰ http://www.softmagic.com/HomePage/ko/05_board/wwwnotice.jsp

$$\begin{aligned}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frac{(iz)^7}{7!} \dots \\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dots \\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dots\right) + i\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dots\right) \\
 &= \cos z + i \sin z
 \end{aligned}$$

그림 22 아래아한글 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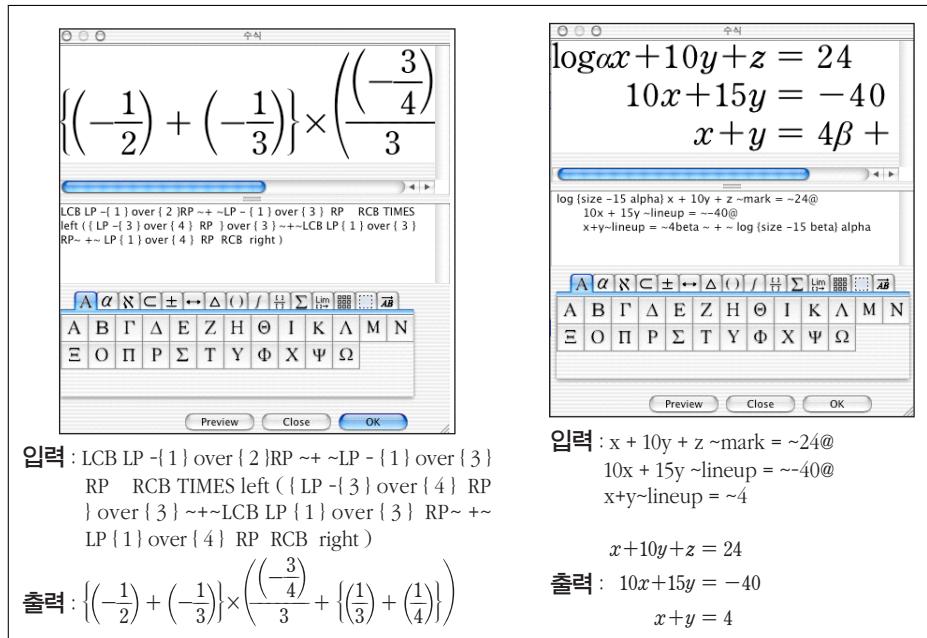


그림 23 MLAYOUT 수식

MathMagic INDESIGN과 QUARKXPRESS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TeX 소스로 내보내는 기능도 있다.

서라(SURA) 일본 시스템인 샤크을 국내설정에 맞게 변형한 조판 프로그램이다. TeX과 마찬가지로 컴파일하여 결과를 얻어낸다.

서울시스템 프로그램 명과 회사명이 같은 조판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일체형이며 수식 편집 기능을 지원하였다.

PageStar 3.0 서울시스템에서 만든 WYSIWYG 계열의 조판 프로그램으로 네오메인이라는 조판 프로그램에서 발전된 프로그램이다. 단축키가 발달된 수식 편집을 지원하였다.

예 1 ►

$$\int_0^{\frac{1}{2}}$$

업 [;] 업 [0] (DO태광분수) [;] [2] [!] [;]
 (첨자를 만들 수 없는 경우는 사이즈를 축소하고 기준선 이동을 하여 사용한다.)

예 2 ►

$$\left[\quad \right]_1^1$$

[;] [1] [1] [!]
 ([를 입력한 경우에는 아래 첨자부터,] 를 입력한 경우에는 위 첨자부터 입력한다.)

예 3 ►

$$\sum_{n=1}^{k-1}$$

[;] [K] [N] [-] [+] [1] [!]

$$\sum_{n=1}^k$$

[;] [N] [k] [+] [!]

$$\sum_{n=1}^{12}$$

[;] [N] [+] [!] (DO태광상부자) [] [] [] [] [] [] []
 (사분각이 있는 곳에 커서를 위치하고 시그마의 중앙과 위첨자에 맞는 위치에 올 수 있도록 –자간을 준다.)

● \lim 의 경우

$$\lim_{n \rightarrow \infty}$$

(DO태광상부자) [I] [i] [m]
 (DO태광상부자로 10포인트일 경우, 5.7pt로 축소, 기준선 이동 -5.7pt)
 [n] [] (DO태광선모음) 업 [] [] [] (DO태광약물) [] [] []
 ($\lim_{n \rightarrow \infty}$ 가 위치하는 곳에 마이너스 자간을 적당하게 준다. \lim 의 중앙에 오게)

그림 24 QUARKXPRESS에서 사용되는 태광수식

6.4 L'Hospital의 법칙

초등미적분학에서 무정형 ($\frac{0}{0}$, 또는 $\frac{\infty}{\infty}$ 풀)인 경우의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L'Hospital의 법칙을 이미 배운 바가 있다. 여기서는 초등미적분학에서 생략되었던 이 법칙의 증명을 앞 절에서 논한 Cauchy의 평균정리를 이용하여 증명하기로 한다.

6.4.1 정의 함수 $f, g : [a, b] \rightarrow \mathbb{R}$ 이 있거나, $\lim_{x \rightarrow a^+} f(x) = \lim_{x \rightarrow a^+} g(x) = 0$ 인 무정형(indeterminate form)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lim_{x \rightarrow a^+} f(x) = \infty$ 또는 $-\infty$ 이 있고, $\lim_{x \rightarrow a^+} g(x) = \infty$ [또는 $-\infty$]이면, 함수 $\frac{f}{g}$ 는 $x = a$ 에서 ∞ 인 무정형이 된다고 말한다.

6.4.2 정리 함수 $f, g : [a, b] \rightarrow \mathbb{R}$ 이 $[a, b]$ 에서 연속이고, 또한 (a, b) 에서 미분 가능하며 $f(a) = g(a) = 0$ 이라고 하자. 또, 모든 점 $x \in (a, b)$ 에 대하여 $g'(x) \neq 0$ 이고, $f'(x) \neq 0$ 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 $\lim_{x \rightarrow a^+} \frac{f'(x)}{g'(x)} = L$ (L 은 실수)이면, $\lim_{x \rightarrow a^+} \frac{f(x)}{g(x)} = L$
- $\lim_{x \rightarrow a^+} \frac{f'(x)}{g'(x)} = \infty$ [또는 $-\infty$]이면,

$$\lim_{x \rightarrow a^+} \frac{f(x)}{g(x)} = \lim_{x \rightarrow a^+} \frac{f'(x)}{g'(x)} = \infty$$
 [또는 $-\infty$]

증명 (a) $\epsilon > 0$ 을 임의의 실수라고 하자. $\lim_{x \rightarrow a^+} \frac{f'(x)}{g'(x)} = L$ 이므로, 주어진 $\epsilon > 0$ 에 대응하는 적당한 $\delta > 0$ 이 존재하여

$$a < x < a + \delta \implies \left| \frac{f'(x)}{g'(x)} - L \right| < \epsilon$$

이 성립한다. 한편, 임의의 점 $x \in (a, a + \delta)$ 에 대하여 $f'(x)/g'(x)$ 는 구간 $[a, x]$ 위에서 Cauchy의 평균값정리의 가정을 모두 만족시킨다. 따라서 $f'(x)/g'(x)$ 는 $x \in (a, a + \delta)$ 에서 L 에 대하여

$$a < x < a + \delta \implies \frac{f'(x)}{g'(x)} > K$$

이다. 따라서 $\lim_{x \rightarrow a^+} \frac{f(x)}{g(x)} = L$ 이다.

(b) $\lim_{x \rightarrow a^+} \frac{f'(x)}{g'(x)} = \infty$ 이므로, $K > 0$ 에 대응하는 적당한 $\delta > 0$ 을 만족시키는 점 $c_\delta \in (a, a + \delta)$ 이 존재한다. 따라서

$$a < x < a + \delta \implies \frac{f'(x)}{g'(x)} > K$$

이다. 따라서 $\lim_{x \rightarrow a^+} \frac{f(x)}{g(x)} = \infty$ 이다.

즉 하므로

$$\frac{f(x) - f(a)}{g(x) - g(a)} = \frac{f(x)}{g(x)} = \frac{f'(c_\delta)}{g'(c_\delta)}$$

를 만족시키는 점 $c_\delta \in (a, x)$ 가 존재한다. 따라서,

$$a < x < a + \delta \implies \left| \frac{f(x)}{g(x)} - L \right| = \left| \frac{f'(c_\delta)}{g'(c_\delta)} - L \right| < \epsilon$$

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우극한의 정의에 의하여 $\lim_{x \rightarrow a^+} \frac{f(x)}{g(x)} = L$ 이다.

(b) ∞ 인 절 오차율을 즐마하게 한다. K 를 임의의 양의 실수라고 하자. $\lim_{x \rightarrow a^+} \frac{f'(x)}{g'(x)} = \infty$ 이므로, $K > 0$ 에 대응하는 적당한 $\delta > 0$ 을 만족시키는 점 $c_\delta \in (a, a + \delta)$ 이 존재한다.

$$a < x < a + \delta \implies \frac{f'(x)}{g'(x)} > K$$

가 성립된다. 한편, (a)의 증명에서와 같아 임의의 점 $x \in (a, a + \delta)$ 에 대하여

$$\frac{f(x) - f(a)}{g(x) - g(a)} = \frac{f(x)}{g(x)} = \frac{f'(c_\delta)}{g'(c_\delta)}$$

를 만족시키는 점 $c_\delta \in (a, x)$ 가 존재한다. 따라서

$$a < x < a + \delta \implies \frac{f(x)}{g(x)} > K$$

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우극한의 정의에 의하여 $\lim_{x \rightarrow a^+} \frac{f(x)}{g(x)} = \infty$ 이다.

190 챕 4장 선형 미분방정식

(풀이)

$$(1) \quad (D^2+6D+9)y=50e^{2x}$$

$$r^2+6r+9=0, \quad (r+3)^2=0, \quad r=-3 \quad (2\frac{2}{3}, -\frac{7}{3})$$

$$y_h = (c_1 + c_2x)e^{-3x}$$

$$y_p = \frac{1}{D^2+6D+9} 50e^{2x} = 50 \frac{1}{4+12+9} e^{2x} = 2e^{2x}$$

$$\therefore y = (c_1 + c_2x)e^{-3x} + 2e^{2x}$$

$$(2) \quad (D^2+3D+2)y=e^x$$

$$(r-1)(r-2)=0, \quad r=1, 2$$

$$y_h = c_1e^x + c_2xe^x$$

$$y_p = \frac{1}{(D-1)(D-2)} e^x = \left(\frac{1}{D-2} - \frac{1}{D-1}\right) e^x$$

$$= \frac{1}{D-2} e^x - \frac{1}{D-1} e^x = \frac{1}{1-2} e^x - e^x \int e^{-x} e^x dx$$

$$= -e^x - xe^x$$

여기 x , $-e^x$ 는 차차 미분방정식의 해에 포함되므로 생략 가능하다.
또는, 다음과 같이 역연산자를 순서대로 적용할 수도 있다.

$$y_p = \frac{1}{(D-1)(D-2)} e^x = \frac{1}{D-1} \left\{ \frac{1}{D-2} e^x \right\} = \frac{1}{D-1} (-e^x)$$

$$= -e^x \int e^{-x} e^x dx = -xe^x$$

$$\therefore y = c_1e^x + c_2xe^x - xe^x.$$

(3) $(D-2)^3y=e^{2x}$

$$(r-2)^3=0, \quad r=2 \quad (3\frac{2}{3}, -\frac{7}{3})$$

$$y_h = (c_1 + c_2x + c_3x^2)e^{2x}$$

$$y_p = \frac{1}{(D-2)^3} e^{2x} = e^{2x} \int \int e^{-2x} e^{2x} (dx)^3 = e^{2x} \frac{x^3}{6}$$

$$\therefore y = (c_1 + c_2x + c_3x^2)e^{2x} + \frac{1}{6}x^3 e^{2x}.$$

(증명)

$$(iii) \quad \mathcal{F}(f'(x)) = \int_{-\infty}^{\infty} f'(x) e^{-ix} dx$$

$$= f(x) e^{-ix} \Big|_{-\infty}^{\infty} - \int_{-\infty}^{\infty} f(x) (-i)e^{-ix} dx$$

$$= (i\lambda) \bar{f}(\lambda).$$

$$\vdots$$

$$\mathcal{F}(f^{(n)}(x)) = (i\lambda)^n \bar{f}(\lambda).$$

$$\mathcal{F}(f(x-a)) = \int_{-\infty}^{\infty} f(x-a) e^{-ix} dx \quad (x-a=p)$$

$$= \int_{-\infty}^{\infty} f(p) e^{-i(x+a+p)} dp$$

$$= e^{-ia} \int_{-\infty}^{\infty} f(p) e^{-ip} dp$$

$$= e^{-ia} \mathcal{F}(f(x)).$$

▶▶▶ 1

다음 함수의 Fourier 변환을 구하라.

$$f(x) = \begin{cases} 0, & (x < 0) \\ 1, & (0 < x < a) \\ 0, & (x > a). \end{cases}$$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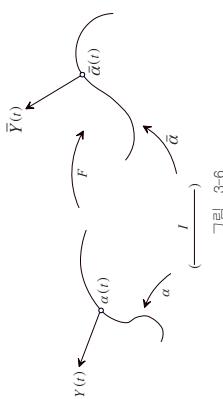
$$\bar{f}(\lambda) = \int_{-\infty}^{\infty} f(x) e^{-ix} dx$$

$$= \int_0^a e^{-ix} dx = \frac{e^{-ix}}{-i\lambda} \Big|_{x=0}$$

$$= \frac{1}{i\lambda} (1 - e^{-ia}) \quad (-\infty < \lambda < \infty).$$

그림 27 서울시스템 수식

문제 3-4



기해 보자. 만약 Y 를 곡선 $\alpha : I \rightarrow E^3$ 위의 벡터장이라 하자. 그리고 $F : E^3 \rightarrow E^3$ 을 임의의 사상이라 하면 $\bar{Y} = F_*(Y)$ 는 E^3 위에서 벡터장이다. 실제로 I 에 속한 t 에 대하여 $Y(t)$ 은 점 $\alpha(t)$ 에서 E^3 의 접벡터이다. 그러나 $\bar{Y}(t) = F_*(Y(t))$ 는 점 $F(\alpha(t)) = \bar{\alpha}(t)$ 에서 E^3 의 접벡터이다. 이 관계가 그림 3-6에서 설명되어 있다. 등장변환은 이런 벡터장의 도함수를 보존한다.

정리 4-1

Y 를 E^3 의 곡선 α 위에서의 벡터장이라 하자. 그리고 F 를 등장변환이라 하면, $\bar{Y} = F_*(Y)$ 는 $\bar{\alpha} = F(\alpha)$ 위에서의 벡터장이고, 관계식

$$\bar{Y} = F_*(Y')$$

를 만족한다.

증명 $F_*(F')$ 와 \bar{Y}' 를 계산하기 위하여 Y 를 유클리드 좌표함수로 표시하자. 즉,

$$Y = \sum_j y_j U_j$$

라 하면

$$Y' = \sum \left(\frac{dy_j}{dt} \right) U_j$$

- $F = TC$ 를 E^3 의 등장변환, β 를 E^3 의 단위속도곡선이라 하자. 다음을 증명하라.
 - (1) β 가 주변나선이면 $F(\beta)$ 도 주변나선이다.
 - (2) β 의 구변성을 β 라 하면 $C(\beta)$ 는 $F(\beta)$ 의 구변성이다.

- [2] 나선 $\alpha(t) = (\cos t, \sin t, 2t)$ 위의 벡터장을 $Y = (t, 1-t^2, 1+t^2)$ 이라 하자, C 를

직교변환

$$C = \begin{pmatrix} -1 & 0 & 0 \\ 0 & \frac{1}{\sqrt{2}} & \frac{-1}{\sqrt{2}} \\ 0 & \frac{1}{\sqrt{2}} & \frac{1}{\sqrt{2}} \end{pmatrix}$$

- 2) $\bar{Y}(t) = C(\alpha)^T \cdot \bar{Y} = C_*(Y)$ 를 증명하라.
- $C_*(Y') = \bar{Y}$, $C_*(\alpha') = \bar{\alpha}'$, $Y \cdot \alpha'' = \bar{Y} \cdot \alpha''$ 이 성립함을 증명하라.

- [3] 꼭지점이 다음과 같은 E^2 의 두 삼각형

$$\triangle_1 : (3, 1), (7, 4), \quad \triangle_2 : (2, 0), (2, 5), \left(-\frac{2}{5}, \frac{16}{5} \right)$$

- 을 스케치하라. 그리고 \triangle_1 을 \triangle_2 로 보낸 등장변환 F 에 의하여 이 두 삼각형이 합동임을 보여라.

- [4] $F : E^3 \rightarrow E^3$ 은 F_* 가 대지를 보존하는 사상이라 하면, F 는 등장변화임을 증명하라.

- [5] F 를 E^3 의 등장변환이라 하자. 각 벡터장 V 에 대하여 $F_*(V(\mathbf{p})) = \bar{V}(F(\mathbf{p}))$ 를 만족하는 벡터장을 \bar{V} 라 하면 등장변환 F 는 공변도함수를 보존함을 증명하라. $(\nabla_{\bar{F}} W = \nabla_F \bar{W})$ 를 보면 된다.)

6 부록: 최근 출판 현황

6.1 출판 통계

표 8 최근 출판사 수 증가 추이

	2008	2007	2006	2005
출판사 수	43,099	29,977	27,103	24,580

자료: 《2007 한국출판연감(자료편)》.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출판사 수가 전체의 80% 이상 차지

표 9 최근 출판사 간행물 실적

간행물 실적 (종)	2007	2006	2005
1~5	1,181	1,068	1,128
6~10	410	380	368
11~15	212	185	195
16~20	118	116	123
21~30	154	127	150
31~40	58	78	87
41~50	36	41	44
51~100	94	105	104
101~150	21	21	26
151~200	18	14	20
201 이상	31	40	28
소계	2,333	2,175	2,273
무실적 출판사 수 구성비 (%)	27,644 92.2	24,928 92.0	22,307 90.8
총 출판사 수	29,977	27,103	24,580

자료: 《2007 한국출판연감(자료편)》. 2008년 자료는 집계되지 않음.

6.2 TeX으로 편집된 책은 몇 종?

이 가운데 TeX으로 조판된 책은 몇 종이나 될까? 순수과학 및 기술과학 분야의 출판에 주로 TeX이 사용된다고 가정하자. 2008년의 경우, 순수과학 및 기술과학 분야의 발행 종수는 $593 + 2754 = 3347$ 종으로 10%가 채 되지 않는다. 김창수(2004)와 정용욱(2007)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판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선호도는 다음과 같다.

김창수와 정용욱의 조사는 TeX을 쓰일 수 있는 이공계열 대학교재 분야 소프트웨어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특히 정용욱의 조사 가운데 설문에 응한 71인 중 단행본 편집자는 7명이고 나머지는 브로슈어 22명, 애뉴얼리프트 5명, 잡지 9명, 기타 27명(패키지·광고) 등이다.

표 10 최근 5년간 분야별 발행 종수

	2004	2005	2006	2007	2008
총류	297	332	254	515	822
철학	584	838	826	1,066	946
종교	1,181	2,032	1,749	1,980	2,009
사회과학	4,651	5,777	6,488	5,579	6,335
순수과학	514	849	694	565	593
기술과학	2,891	3,660	4,493	3,135	2,754
예술	1,308	1,632	1,731	1,441	1,451
언어	1,503	2,246	2,277	1,667	1,823
문학	6,070	8,261	9,667	7,752	8,482
역사	1,128	1,300	1,326	1,048	1,139
학습참고	1,485	1,919	1,830	1,749	1,787
아동	5,915	7,146	6,700	7,307	8,417
만화	7,867	7,593	7,486	7,290	6,541
합계	35,394	43,585	45,521	41,094	43,099

자료: 『2007 한국출판연감(자료편)』 및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 (www.kpa21.or.kr)

표 11 출판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김창수(2004)			순위	정용율(2007)		
비율(%)	빈도	운영체제		운영체제	빈도	비율(%)
81.8	99	맥킨토시	1	맥킨토시	43	60.1
18.2	22	IBM	2	IBM	28	39.4
비율(%)	빈도	조판		조판 및 그래픽	빈도	비율(%)
81.8	99	QUARKXPRESS	1	QUARKXPRESS	32	45.1
16.5	20	아래아한글	2	INDESGIN	24	33.8
1.7	2	INDESIGN	3	ILLUSTRATOR	8	11.3
		(PAGEMAKER 포함)	4	PHOTOSHOP	6	8.5
			5	COREL DRAW	1	1.4
비율(%)	표본수		성별	표본수	비율(%)	
25.6	31		남	43	60.1	
74.4	90		여	45	63.4	

우리나라 조판 전문 회사 중 수식 편집을 많이 맡고 있는 (주)동국문화에 문의한 결과는 대략 표 12 과 같다. 참고로 (주)동국문화는 TeX 편집은 하지 않는다.¹¹

이렇듯 통계가 엄밀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전체 출판물 가운데 TeX 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억지로 한번 계산해보자. (주)동국문화의 통계 중 기타 6.7%에서 TeX 이 차지하는 비중이 1%라 가정하자. 그러면 2008년 순수과학 및 기술과학 분야의 발행 종수 $593 + 2754 = 3347$

¹¹ 도서출판 푸른별의 이철영 주간님께서 알려주셨다.

표 12 (주)동국문화의 조판 프로그램 분포

조판 프로그램	비율(%)	비고
QUARKXPRESS	66.6	
아래아한글	20.5	
INDESIGN	6.7	수식 지원이 매끄럽지 못함
기타	6.7	MS-WORD 등 포함

의 1%, 즉 TeX으로 조판된 책은 약 34종 가량 된다. 이는 2008년 전체 출판물 43,099종 가운데 0.08%에 불과하다.

6.3 한글 글꼴 선호도 조사

표 13 한글 본문 글꼴 선호도 조사

김창수(2004)			순위	정용욱(2007)		
비율(%)	빈도	글꼴명		글꼴명	빈도	비율(%)
32.2	78	윤명조*	1	윤명조 100	42	24.1
12.4	30	SM 신명조	2	윤고딕 100	37	21.3
10.7	26	윤고딕*	3	SM 신명조	15	8.6
8.3	20	산돌명조	4	SM 신신명조	11	6.3
5.0	12	# 신명조	5	산돌명조	8	4.6
3.3	8	HY 신명조	6	윤고딕 300 산돌고딕	6 6	3.4 3.4
2.1	5	SM 신신명조 바탕 굴림	7			
		바탕	8 9	윤명조 200 돋움	5 4	2.9 2.3
1.7	4	신명조 휴먼명조 # 중고딕 HY 중고딕	10	HY 중고딕	3	1.7
—	—	기타	—	기타	—	—

* 윤명조, 윤고딕은 각각 윤명조 100, 윤고딕 100 시리즈이며 빈도 합계는 복수응답자 수이다.

표 14 한글 제목 글꼴 선호도 조사

김창수(2004)			순위	정용욱(2007)		
비율(%)	빈도	글꼴명		글꼴명	빈도	비율(%)
16.5	40	윤고딕*	1	윤고딕 100	30	20.0
9.9	24	윤명조*	2	윤명조 100	20	13.3
5.4	13	HY 율릉도	3	SM 신신명조	9	6.0
4.1	10	산돌고딕	4	산돌고딕	7	4.7
2.9	7	산돌명조	5	윤고딕 300	6	4.0
2.1	5	HY 헤드라인 # 견출고딕 운체 산돌제비 산돌신문제비 SM 신명조	6	HY 중고딕 SM 중고딕 신문명조	5	3.3
			9	윤고딕 HY 중고딕	4	2.7
—	—	기타	—	기타	—	—

* 윤명조, 윤고딕은 각각 윤명조 100, 윤고딕 100 시리즈이며 빈도 합계는 복수응답자 수이다.

7 참고 문헌

강희일, 『한국출판의 이해』, 제 2판 2007.

김강수 옮김, 『MEMOIR 클래스 매뉴얼』, 2005. (Peter Wilson, *The Memoir Class for Configurable Typesetting User Guide*, The Herries Press, 2004.)

김강수, “한글 문장부호의 조판 관행에 대하여,” *The Asian Journal of TeX*, vol. 1, no. 1, 한국텍학회, 2007.

김도현, “유니코드 $\text{\texttt{ko}}\text{\texttt{TeX}}$ 에서 $\text{\texttt{finemath}}$ 기능의 구현,” *The Asian Journal of TeX*, vol. 1, no. 2, 한국텍학회, 2007.

김도현, “마이크로타입을 아시나요,” 한국텍학회, 2007.

김은희 옮김, 『레이아웃 북』, 안그라픽스, 2008. (Gavin Ambrose and Paul Harris, *The Layout Book*, AVA Publishing, 2007.)

김진섭, 『책 잘 만드는 책 :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위한 책 만들기 완벽 실무 가이드』, 제 3판, 은행나무, 2008.

김창수, “출판인의 한글 서체 선택 이유와 서체 이미지에 관한 연구,”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저널리즘학과, 2004.

김현미,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33 가지 서체 이야기』, 세미콜론, 2007.

대한출판문화협회, 『2007 한국출판연감』(목록편 · 자료편), 대한출판문화협회, 2007.

송성재 옮김, 『북디자인 교과서』, 열린책들, 2008. (Andrew Haslam, *Book Design*, Laurence king Publishing Ltd., 2006.)

안춘근, 『한국서지학원론』, 범우사, 1992.

열린책들 편집부 엮음,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열린책들, 2008.

원유홍 · 서승연,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 타이포그래피의 개념과 실제』, 안그라픽스, 2004.

윤광희 · 김도현 · 김강수, 『한국어 텍 $\text{\texttt{ko}}\text{\texttt{TeX}}$ vo.1.0 사용 설명서』, 한국텍학회, 2007.

이종운, 『도서편집총람 — 판면편집과 교정』, 범우사, 1992.

정용우, “한글 서체에 적합한 영문 서체의 유사성 연구 —국 · 영문 혼용시의 가독성을 중심으로,” 한경대 산업대학원 석사: 디자인학과, 2008.

조진환, “TeX: 조판, 그 이상의 가능성,” *The Asian Journal of TeX*, vol. 1, no. 1, 한국텍학회, 2007.

조진환, “한글 라텍이 걸어온 길과 $\text{\texttt{ko}}\text{\texttt{TeX}}$,” *The Asian Journal of TeX*, vol. 1, no. 2, 한국텍학회, 2007.

- 파주공업고등학교, 《출판디자인》, 대한교과서(주), 2007.
- 한국글꼴개발원, 《글꼴 200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부설 한국글꼴개발원, 2006.
- (재)한국출판연구소, 《출판사전》, 범우사, 2002.
- 홍우동, 《편집에서 제책까지》, 지문사, 1996.
- Phil Baines and Andrew Haslam, *Type and Typography*, 2nd edition, Watson-Guptill, 2005.
- Rober Bringhurst, *The Elements of Typographic Style*, version 3.1, Hartley & Marks Publishers, 2005.
- Chicago University Press,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5th edition, Chicago University Press, 2003.
- Torbjørn Eng, *InDesign, the hz-program and Gutenberg's secret*, Mar. 2008.
- James Felici, *The Complete Manual of Typography*, Adobe Book Press, 2003.
- Donald E. Knuth, *The TeXbook*, Computers & Typesetting Series vol. 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86.
- Frank Mittelbach and Michel Goossens with Johannes Braams, David Carlisle, and Chris Rowley, *The L^AT_EX Companion*, second edition, Addison-Wesley, 2004.
- Apostolos Syropoulos, Antonis Tsolomitis and Nick Sofroniou, *Digital Typography Using L^AT_EX*, Springer, 2003.
- Hàn Thé Thành, “Micro-typographic extensions to the T_EX typesetting system,” doctoral dissertation, Masaryk University, Oct. 2000.
- Hermann Zapf, “About micro-typography and the *hz*-program,” *Electronic Publishing*, vol. 6(3), John Wiley & Sons, 1993.

T_EX: Past, Present, and Future

2009 한국텍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날짜: 2009년 2월 14일 (토) ● 시간: 09:30 ~ 17:00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강연실 (서울캠퍼스)

주 제 텍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T_EX: Past, Present, and Future

주제 강연



Hans Hagen and Taco Hoekwater, Introduction to ConT_EXt and LuaT_EX

김강수, 한글 텍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기획 발표

출판 현장에서의 텍의 활용(이주호)

교육 현장에서의 텍의 활용(김영록)

기업 환경에서의 텍의 활용(윤석천)

텍을 이용한 프리젠테이션의 실제(이은신)

텍을 이용한 그래픽의 실제(조진환)

텍과 스크립트 언어의 만남(이기황)

- 주최: 한국텍학회(<http://conf.ktug.or.kr>)
- 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학술진흥재단